

2026년도 울주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 경영기술 연수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재)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도 울주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 경영기술 연수」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재)울산지역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울주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 경영기술 연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울주군 중소기업인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지원방향)** 울주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산업 동향 파악 지원
 - 현지 시장 조사 및 선진기술 관련 해외 유명 전시관 견학
 - 글로벌 우수기업 및 현지 유관기관 견학
- **(지원대상)** 울주군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인 20명 정도
 - 참가기업당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단, 2인 이상 참여 희망 기업의 경우, 대표자 외 차세대 경영인으로 제한하며, 개별 문의 필요
- **(군 지원)** 공무원 여비기준 항공, 여행자보험, 단체차량 등
 - (항공) 이코노미 기준, 한국 ↔ 중국 왕복
- **(자부담)** 1인당 150만원 정도
 - (내역) 공무원 여비기준 초과분(숙박, 식비) 및 입장료 등
 - (항공) 비즈니스 좌석 신청 시, 자부담 외 약 140만원 추가
 - 항공권 발권 시점에 따라 추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단거리 노선으로 인해 좌석 수량 제한됨
 - (기타) 환율 급등 등 현지사정에 의해 추후 참가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취소 시, 관련 수수료 100% 본인 부담(항공, 숙박, 입장료, 기타 공통비용 포함)

2. 지원 내용

□ (주요일정)

날짜		지역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일차	10/3(토)	울산	오전	이동	· 울산 → 김해공항 → 인천 이동
		인천	오후	이동	· 인천공항 → 홍콩(13:45-17:50)
		홍콩	저녁	네트워킹	· 석식 및 네트워크 교류
2일차	11/1(일)	홍콩	오전	이동	· 홍콩 → 선전 이동
		선전	오후	기업방문	· [공식일정] DJI 플래그쉽
			오후	문화체험	· 화창베이
3일차	11/2(월)	선전	오전	기업방문	· [공식일정] BYD
			오후	기업방문	· [공식일정] Dobot Robotics
4일차	11/3(화)	선전	오전	기관방문	· [공식일정] 남산 과학기술원
			오후	이동	· 선전 → 항저우 이동
5일차	11/4(수)	항저우	오전	기업방문	· [공식일정] 알리바바
			오후	문화체험	· 서호, 성황각, 청하방 옛거리 등
6일차	11/5(목)	항저우	오전	기관방문	· [공식일정] 항저우 하이테크 전시관 및 지혜e곡
			오후	문화체험	· 오진서책, 소명서원, 백련탑 등
7일차	11/6(금)	항저우	오전	이동	· 항저우 → 상해
		상해	오후	기관방문	· [공식일정] 상해대학교 과학기술단지
8일차	11/7(토)	상해	오전	이동	· 상해 → 부산 (10:55-13:00)
		부산	오후	이동	· 부산 → 울산 (14:00-15:00)
		울산	오후	이동	· 해산

※ 일정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울산-부산 간 왕복 이동의 경우, 울주군청-신북 정류소-서울산(IC) 정류소에서 승·하차

□ (방문일정)

① DJI(대강창신) 플래그쉽

-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DJI(대강창신)가 본사인 선전에 구축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드론 체험 및 하이테크 문화 복합 공간

< DJI(대강창신) 플래그쉽 >

- ❖ 민수용·촬영용 드론 시장의 약 70~80%를 독점하고 있는 DJI의 브랜드 상징이자, 드론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눈으로 확인하는 '드론의 메카'
- ❖ 2015년 12월, 선전의 복합 문화공간인 OCT 하버(상업구) 개설
- ❖ 드론 비행 시연(플라이존), 촬영 기술 교육, 수리 서비스를 결합한 고도의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 선전이 '세계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 알리는 랜드마크 역할

② BYD

-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BYD가 선전 평산구(Pingshan) 등에 구축한 전기차·배터리 통합 연구개발(R&D) 및 거대 스마트 제조 생태계

< BYD >

- ❖ 미국의 테슬라와 전 세계 친환경차(NEV) 판매 1~2위를 다투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이자, 자체 배터리(블레이드 배터리) 공급망까지 완벽히 내재화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의 심장부
- ❖ 1995년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하여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입한 후, 2010년대부터 선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 ❖ '배터리-반도체-모터-완성차'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공정을 완성한 기지, 선전시가 전 세계 대도시 최초로 시내버스와 택시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탄소중립(Net-Zero) 기술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을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전초기지

③ Dobot Robotics

- 중국의 로봇 굴기를 대변하는 스타트업이자, 선전 난산구에 위치한 경량형 협동 로봇(Cobot) 및 AI 비전 통합 솔루션 전문 개발 기지

< Dobot Robotics >

- ❖ 전 세계 교육용·데스크톱 협동 로봇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협동 로봇 분야에서도 스마트 제조 분야의 신흥 강자로 떠올라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글로벌 강소기업
- ❖ 2015년 중국 과학기술의 중심인 선전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립
- ❖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충돌 감지 기술(SafeSkin)'과 'AI 머신러닝 비전'을 국산화·고도화, 정밀 전자부품 조립, 의료, 서비스업은 물론 전 세계 교육 기관에 코딩 및 로봇 제어 교육 인프라 보급을 통해 미래 로봇 인재 양성

4 남산 과학기술원

- 텐센트, ZTE, DJI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하고 밀집해 있는 '중국 시선전 난산구의 핵심 국가급 하이테크 산업단지(선전 고신구)'

< 남산 과학기술원 >

- ❖ 미국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중국의 테크 심장부'로, 중국 내에서 단위 면적당 GDP와 특허 출원 수가 가장 높은 세계 최고 밀도의 혁신 클러스터 중 하나
- ❖ 1996년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선전시 난산구 일대에 본격적 조성
- ❖ 중국 내 최고의 산학연(선전대학 및 연구소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여 모바일 인터넷, ICT,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며칠 만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초고속 하드웨어 공급망 인프라를 제공하며, 중국 기술 자립의 핵심 버팀목 역할

5 알리바바

-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및 IT 거물 알리바바 그룹이 고향인 항저우에 구축한 초대형 스마트 친환경 기술 캠퍼스이자 글로벌 e커머스·클라우드 R&D 총본산

< 알리바바 >

- ❖ 미국의 아마존과 비견되는 아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핀테크(엔트그룹), 클라우드 컴퓨팅(알리바바 클라우드) 생태계 허브
- ❖ 1999년 마윈이 항저우 아파트에서 창업한 후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핵심 심장부인 시시(Xixi) 캠퍼스는 2013년에 1기가 준공
- ❖ 글로벌 디지털 무역 인프라(eWTP)를 주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시스템(차이나오) 및 클라우드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 항저우를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모바일 결제(알리페이)'가 가장 먼저 보편화된 스마트 도시 탈바꿈

6 항저우 하이테크 전시관 및 지혜e극

- 항저우 빈장구(Binjiang)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에 구축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첨단 기업들의 집적지이자 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 기술 시연·비즈니스 공간

< 항저우 하이테크 전시관 및 지혜e극 >

- ❖ 세계 최대의 영상 보안·IoT 기업인 하이커비전(Hikvision)과 다후아(Dahua) 등이 위치한 '글로벌 IoT 및 스마트 감지(Sensing) 기술의 메카'
- ❖ 2010년대 중반, 항저우시가 빅데이터 기반의 '시티 브레인(City Brain)' 정책을 추진하며 정보경제 산업의 핵심 기지로 집중 조성
- ❖ 도시 전체의 교통, 안전, 환경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시티 실증 모델을 구축·전시하고 비즈니스 매칭, 중국 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의 표준을 제시하고, 중소 기술 기업들에게 전시 공간 및 인큐베이팅 환경을 제공하여 항저우를 '디지털 경제 1위 도시'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

7 상해대학교 과학기술단지

- 상해대학교(Shanghai University) 산하의 국가급 대학 과학기술원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R&D)를 실제 산업계로 기술 이전하고 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 지지

< 상해대학교 과학기술단지 >

- ❖ 중국 정부(과기부 및 교육부)가 공인한 '국가급 대학 과학기술원(National University Science Park)'으로, 상하이외의 첨단 제조 및 신소재, 지능형 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연구-상용화 연계 역량 인정
- ❖ 2000년대 초반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한 이후, 상하이시의 혁신 전략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장·고도화
- ❖ 고고도 정밀 장비,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요소 기술 등 대학 실험실 내부의 논문 수준 기술을 실제 상업 제품으로 전환(Spin-off)하는 가교 역할,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드 머니와 공간을 제공하며, 상하이 스마트 제조 및 첨단 부품 산업 공급망에 고급 엔지니어 인력과 원천 기술을 끊임없이 수송하는 역할 수행

3. 모집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6.(월) ~ 7. 31.(금)

(접수방법)

구분	접수처
해외 경영기술 연수	<input type="checkbox"/> 울주군 통상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https://www.ulju.ulsan.kr/trade/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참가신청서	서식 1
2	필수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3	필수	참가 서약서	서식 3
4	필수	사업등록증(사본)	국세청 홈택스
5	해당시	공장등록증(사본)	정부24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정부24)
7	필수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문의처)

구분	담당자	내선	E-mail
해외 경영기술 연수	김태욱 책임	052-248-5767	twkim@riia.or.kr

4.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
 - (필수) 울주군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경영인
- 우대사항
 - ① 소재지 기준
 - 1순위 : 공장(울주군) 및 본사(울주군)
 - 2순위 : 공장(울주군) 및 본사(울산)
 - 3순위 : 공장(울주군) 및 본사(타지역)
 - 4순위 : 본사(울주군)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 ② 시상기업 기준
 - 최근 3년간 울주군 기업인상 및 수출우수기업상 등 시상기업
 - 「울주군 기업활동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

□ (제외대상)

- 사업 기간 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이 소재하지 않은 기업
- 최근 연도 결산 기준(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인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 결정 시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을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선정방법

□ (선정기준 및 방식)

- (선정평가)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선정기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정량(사업장규모, 국내외 매출, 마케팅 실적 등), 정성(사업성, 기대 효과 등) 등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 이후 각 접수기업별 선정여부 별도 안내

6. 유의 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 항공 및 숙박 등의 등급 상향 시, 참가비용 외 추가금 발생
- 환율 급등 등 현지 사정에 의해 추후 참가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취소 시, 관련 수수료 100% 본인 부담(항공, 숙박, 입장료 외 공통비용 포함)